

이혼 전 의사결정단계 부부를 위한 치료 사례 연구

A Case Study for a Couple in Pre-Divorce Decision-Making Stage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복지주거학과
교수 김정옥

Department of Family Life Welfare & Hou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rofessor : Jung Ok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a couple in the pre-divorce stage. We used data from the case study to examine the factors related to marital conflict and enhancements related to the family of origin. Our sample was the couple in pre-divorce stage who has been married for 3 years.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methods used were taken from Positive Psychology, Family Systems Theory, Communication Theory, and Solution-Focused Therapy. We counseled the couple once a week for 10 sessions from 5th October to 7th December in 2010. Our objective was to give a positive perspective on the couple who was in the pre-divorce stage. We also provided clear-cut, practical techniques for responding productively to inappropriate expressions of anger. The couple acquired strategies to make their relationship work more effectively. Finally, the couple set their family goals for adjustment instead of divorce.

주제어(Key Words) : 이혼 전 의사결정단계(pre-divorce decision-making stage), 긍정심리(positive psychology),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s theory), 의사소통이론(communication theory), 해결중심치료(solution-focused therapy)

I. 서론

결혼생활은 서로 다른 가족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남녀가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김정옥 외, 1999). 이 과정에서 부부가 상호 차이점을 수용하여 그들 가족만의 규범과 문화를 재창출해 가는 것은 가족원의 행복과 가정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생성가족이 가족체계를 재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부부 각자의 원가족 문화 간의 차이는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역동을 발생시키게 되고(신수진, 최준식, 2002),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김혜정, 2008; 이두원, 2009). 친밀한 관계로 형성되어야 할 가족은 오히려 성장 과정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김재원, 2001), 심지어 결혼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박태영, 김태한, 김혜선, 2009; 하상희, 2008; Canary, Cupach, & Serpe, 2001). 이처럼 많은 생성가족들이 가족체계의 재조정 과업을 수행하는 데 원가족의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률의 증가에 일 요인이 되고 있다.

근래에는 이혼이 가족문제 해결의 한 대안이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하나, 이혼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위기 사건이며 정신건강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혼의 결과는 개인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며(김동일, 2010) 나아가 원가족의 생활 영역에도 복합적인 적응의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Sprenkle와 Storm(1983)은 이혼에 대한 가족치료에 대해 크게 세 단계 즉 이혼 전 의사결정단계, 이혼 재구조화단계, 이혼 후 회복단계로 개념을 내렸으며, 이 중 이혼 전 의사결정단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족 치료 과정이 덜 발달되어 있다(윤명숙, 2000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 단계는 결혼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는 사고와 감정이 구체화되면서 이혼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이혼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이므로 이 단계에서의 적절한 가족치료 개입은 이혼을 예방하거나 이혼 후 적응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크다. 특히 결혼 후 4년 이하 부부의 이혼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 보고(통계청, 2011)을 고려할 때 결혼 초기의 적응에 문제가 있는 부부에게 원가족 배경의 차이로 인한 갈등에 대한 긍정적 관점과 가족하위체계, 기능적인 의사소통, 갈등에 대한 해결중심적 접근은 이혼 여부를 숙려하는 당사자들에게 관계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가족의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해 결혼의 위기를 맞은 부부의 사례를 통해 이혼 전 의사결정단계

에 대한 가족치료 개입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치료의 이론적 모델

1) 긍정심리적 가족치료 모델

Martin Seligman은 심리학이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임무는 열심히 해왔지만 모든 사람이 보다 생산적이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과 사람들의 재능을 찾아내고 기르는 것은 경시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심리학의 초점을 긍정심리학 쪽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긍정심리학의 주요 관점은 인간의 약점과 장애에 대한 학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강점과 덕성에 대한 학문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심리적 접근은 Carl Rogers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과 Maslow의 '자기를 실현해가는 사람' 즉 인본주의 심리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인간의 긍정적이고 적응적이며 창조적이고 자기실현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보다 전체적인 접근을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심리학 이론, 연구방법, 개입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이혼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가족치료적 개입은 장애와 문제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요소의 감소 또는 제거에 초점을 두어온 경향이 있으나 문제의 소멸 뿐 아니라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내적인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개인의 강점과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긍정심리적 접근이 보다 효율적인 개입이라는 관점이 부각되고 있다(Seligman, 1999; 김진숙, 2010에서 재인용).

따라서 치료자의 과업이란 내담자의 주도성과 자기 결정성을 존중하는 원칙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치료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며(Levin, 2005; 김진숙, 2010에서 재인용), 긍정심리적 치료 접근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심리적 강점을 발견하고 계발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상의 기능 상태로 향상시킴으로써 동일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Bowen의 가족체계 치료모델

Bowen의 가족치료모델에서는 부모 특히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미분화된 정서적 관계를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가족투사 과정을 통해서 전수된다고 보았고, 치료목표는 자녀를 미분화된 가족자아집합체로부터 분화하는 것에 두었다. 특히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삼각관계 형태는 심하고 관계

가 중요할수록 그 형태가 강하다. 두 사람의 정서체계는 긴장이 없을 때는 안정되지만 불안이 증가하면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제 3자와의 의존적 관계(융합)를 통해 불안을 극복하려고 이 불안한 부부정서관계에 자녀를 끌어들이며 속죄양을 만들기도 한다. Bowen은 삼각관계를 가장 불완전한 관계체계로 보았고 삼각관계가 일시적으로 불안이나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가족의 정서체계는 더욱 혼란스런 증상을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Goldenberg & Goldenberg, 2007).

Bowen의 가족체계 치료모델의 치료 핵심은 여러 세대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가족과정과 구조를 파악하여 원가족에게서 자기분화를 높여 가족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다세대 정서체계에 퍼져 있는 만성불안 유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족원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자기분화를 촉진하여 삼각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2005). 이에 본 연구에서 치료자는 이 이론을 근거로 남편의 원가족과 아내의 원가족의 정서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3) 의사소통 모델

의사소통모델은 체계적인 준거틀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 치료와 가족치료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하나의 치료적 기술은 의사소통 훈련과 문제해결 훈련이다. 부부갈등의 공통적인 요인이 서로 다른 의사소통유형이며, 원가족에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 후에도 부부관계 혹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Johnson & Jacob, 2000). 의사소통 훈련은 결혼관계에서 갈등문제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효과적으로 의사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행동주의 부부 치료자들은 문제해결과 행동변화를 위하여 경청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 왔다(Baucom et al., 1995; 박태영, 2000a에서 재인용).

4) 해결중심치료 모델

해결중심모델은 전략적 치료, 특히 MRI(Mental Research Institute)모델에서 출발하였으나 전략적 치료자들이 문제에 관련된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문제해결에 비효과적이었던 방법 즉 문제중심 접근방식이었다면 해결중심 치료자는 효과적이었던 해결책을 탐색하였다(김성천, 이소영, 장혜림, 2002). 해결중심치료에서는 내담자는 이미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며 단지 부정적 마음자세가 그들의 행동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라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예외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문제가 없었던 예외적 상황을 보도록 도울 뿐 아니라 이런 예외가 바로 해결책이라고 깨닫도

록 돕는 것이 해결중심치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기적질문은 “오늘밤에 당신이 잠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기적질문은 내담자에게 목적에 대한 비전을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마음자세를 활성화시킨다. 이는 내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가로막고 있던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도록 돕는다. 척도질문은 “0에서 10점까지의 척도에서 0점은 나에게 전화를 걸 때 우울했던 점수이고, 10점은 기적이 일어난 다음날의 기분이라고 합시다. 지금은 몇 점쯤 될까요?” 만약 내담자가 3이라고 대답하면, “그렇다면 4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고 묻는다. 척도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이분법적 사고에 고착되지 않고 목적을 향한 작은 변화를 인식하고 키워가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해결중심치료는 내담자가 비판주의에서 벗어나 건설적 행동을 실행해 나가도록 돕는 유용한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치료자의 목적은 내담자가 자신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전문가라고 간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창출하도록 도우는 촉진자, 길잡이 또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다.

2. 선행연구

최근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숙려제도 등 이혼 전 단계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쟁점화되고 있다. 이혼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한 개인이나 가족의 적응 및 부적응에 대한 개입이 대부분이다(신영화, 2005).

Sprenkle 과 Storm(1983)은 이혼상담을 이혼 전 의사결정단계, 이혼 재구성단계, 이혼 후 회복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혼 전 의사결정단계는 결혼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사고와 감정이 구체화되는 단계로서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이다.

이혼 전 단계에 대한 상담은 이혼 여부 보다는 부부가 결혼생활 속에서 상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이혼이 불행한 결혼관계의 해결책인가의 여부를 탐색하는 것이다(Sprenkle, 1985). 그러므로 이혼 전 단계에서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이혼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혼란스러운 내담자 부부를 도와 개인과 부부, 가족의 복지를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둔다(전영주, 2004). 그러므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이혼이 아닌 결혼관계의 지속 또는 증진으로 전환될 개연성을 가지는 것이다.

Kaslow와 Schwarz(1987)은 이혼 전 의사결정단계에서는 부부관계가 소원하며,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으

며, 불행한 척 위장하여 애정 회복을 시도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혼 전 상담에서 이혼과 결혼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부에게 이혼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개입이 오히려 결혼생활을 강화시킨다는 결과(Brock & Barnard, 2002)도 있다.

이혼 전 상담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MRI 접근과 이야기치료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박태영, 2000b)와 해결중심접근을 통한 사례(최인숙, 1995)가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이혼 전 상담의 개입 과정에서 부부의 욕구와 기대, 결혼의 장, 단점에 대한 목록 작성이 결혼관계 및 이혼 고려에 대한 사정에 중요한 과정이며 부부의 감정방식,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혼을 초래하는 부부갈등의 원인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미분화된 정서적 관계(남순현 외, 2005), 원가족에서의 문화와 경험 차이(박경, 2002)라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이 때 사용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패턴이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부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다고 보고되고 있다(장미희, 전원희, 2008). 머느리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박경란, 이영숙, 2003)에서는 남편의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생활습관을 존중받지 못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엄예선(1988)은 한국의 부모와 자녀 간 경계선이 밀착된 특성이 결혼 후에도 이어지며 이러한 시어머니의 과도한 관심이 머느리와 갈등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아들의 남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아들부부의 결혼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1) 의뢰동기

본 사례는 결혼연수 3년인 부부의 경우로서 남편(35)과 결혼 초기부터 인생태도, 의사결정문제, 의사소통방식의 차이와 시댁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아내(28)가 최근 시댁과 시숙의 김장까지 도맡아 하라는 시어머니의 통고에 불만을 표했다가 남편과 가정불화가 잦아지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부부가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 상호 합의하에 아내가 상담을 의뢰하게 된 경위이다.

2) 초기 제시된 문제

(1) 남편은 매사에 시어머니의 관여와 의사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아내를 배려하지 않는다.

(2)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숙, 시동생 등 남편의 원가족이 아내를 무시하고, 폭언을 극히 자주 하고, 수시로 본 사례 부부의 집을 방문하는 등 사생활이 거의 없다.

(3) 남편은 아내를 철이 없다고 여기며, 이기적인 성격이라고 비난한다.

3) 가족 배경

(1) 남편(35) : 대졸, 공무원, 3남 중 둘째, 성격은 내성적이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친밀한 것은 아니나 밀착정도가 심한 편이다. 친구들과 직장동료들과의 관계는 폭넓고 원만한 편이다. 평소 퇴근 후 말이 없고 컴퓨터 앞에만 있는 편. 딸(3)과 하루 10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긴 하나 육아는 거의 아내에게 일임하는 편이며 아이는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보내기 보다는 엄마가 교육시키는 것이 좋다는 자녀양육태도를 확고히 가지고 있음. 부부와 딸과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으나 시댁 가족과 함께 있으면 아내를 무시하고 통명스럽게 대하며 꼭 부부싸움을 하게 됨. 결혼 후 1년까지는 음주 후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술주정을 하였으나 지금은 술버릇을 고쳤음. 본인은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2) 아내(28) : 고졸, 결혼 전 중소기업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했으나 혼전 임신 후 바로 결혼한 후 전업주부로 있음. 결혼 전 교제기간이 3개월 정도였고 임신이 된 상태였으므로 배우자선택이 경솔했다는 생각을 평소 해 왔음. 딸을 어린이집에 보낼 동안 자신의 능력 계발에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구가 강하나 남편의 반대로 하루 종일 딸과 집에 있으며 수시로 시어머니가 집에 들르므로 감옥에 갇혀 감시받는 느낌을 받음. 결혼연수 3년째이나 아직 남편이 낮설게 여겨지고, 시부모의 의사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남편의 태도와 행동이 이해가 안 되며,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 즉 자신과 극히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특히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 자신에게 아무렇지 않게 폭언을 일삼는 것은 자신이 고졸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음. 결혼 전에는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잘 웃는 편이며 유머도 많은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와도 피하고 싶으며 거의 웃지도 않는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남.

(3) 딸(3) : 불임성이 있고 활발함

(4) 남편의 원가족(시아버지:65, 시어머니:60, 시숙:40, 시동생:33) : 시아버지는 말이 없는 편이나, 술을 마시게 되면 주변사람들에게 폭언을 하는데 특히 시어머니에게 언어적 폭력을 심하게 함. 최근 명절 때 시댁모임에서 음주 후 시어머니가 말대꾸를 한다고 상을 뒤엎은 적이 있음. 평소에는 시어머니에게 고분고분하며 의사결정권 등 권한

을 일임하는 편.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관여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함. 시아버지의 직업이 건설현장의 일용직 등 안정적이지 않았으므로 시어머니가 젊어서부터 가정의 생계를 거의 책임지다시피 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함. 시숙은 3년 전 이혼하였고 1년 전 재혼 후 당분간이라며 두 자녀(13세, 10세)를 부모께 맡기고 본가로부터 3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로 분가함. 시숙은 대기업 과장으로 있으며 자녀를 보러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올 때마다 시부모께 용돈을 드리므로 특별대우를 받음. 시동생은 아직 미혼이며 중소기업에 다니며 시부모와 동거함.

(5) 아내의 원가족(친정아버지;59, 친정어머니;50, 남동생;25) : 친정아버지는 자수성가형으로 유기농 농사를 지으며 다정다감한 성격에 가정적임. 자녀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임. 친정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전형적인 자기희생적인 어머니상을 지니고 있으며 결혼생활 30년 동안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주위로부터 인고부부로 소문이 날만큼 부부관계가 좋았음. 남동생은 올해 군에서 제대 후 중소기업에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미혼임. 누나와 자주 속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남매간의 우애가 돈독함. 이 가정의 덕목은 예의와 도리를 중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가족 간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임.

2. 문제분석 및 연구문제

1) 치료자의 문제분석

- 부부 상호 원가족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 남편의 어머니로부터의 낮은 자아분화 수준
- 가족의 하위체계간의 모호한 경계
-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 비효율적 문제해결방법

2) 치료전략

- 부부간 상호 원가족의 가치관,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이해,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감, 수용, 긍정적 재해석(낙관성)의 과정을 중재한다.
-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덜 분화된 자아를 깨닫고 자아분화를 하도록 도우며, 부모-자녀 및 부부 체계간의 경계 확립을 촉진한다.
- 부부간의 기능적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한다.
- 해결중심치료기법을 이용하여 부부간에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능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도운다.

3) 연구문제

(1) 이 부부의 갈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 (2) 부부 간 차이의 수용은 어떠한가?
- (3) 부부 하위 체계는 어떠한가?
- (4) 부부의 의사소통 수준은 어떠한가?
- (5) 부부의 문제해결 방식은 어떠한가?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가족치료 회기에 나타나는 부부의 상호작용, 원가족의 특성, 가족치료의 접근 관점과 결과에 대한 요인들을 찾기 위하여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자료 속에서 반복되는 같은 의미의 개념들을 분류하여 상위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코딩 작업을 거쳤고, 이렇게 형성된 상위 범주들을 Miles와 Huberman(1994)이 제안한 효과매트릭스(effects matrix)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기부터 10회기까지 자료에서 반복되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였고, 축어록, 상담기록지, 녹음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삼각화를 추구하였다. 연구자와 수퍼바이저, 전문상담가 간의 토론을 통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치료절차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로서 내담자 가족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실명이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는

〈표 1〉 치료절차

회기	내용 및 개입	참여자
1	부부 간 문제 규정 및 치료 목표 설정; 공감, 수용, 질문기법	부부
2	아내의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 및 욕구 : 공감, 수용, 긍정적 해석(원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 체계론적 접근)	아내
3	남편의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및 욕구 : 공감, 수용, 긍정적 해석(원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 체계론적 접근)	남편
4	부부 상호 욕구의 이해/부부간 의사소통 유형 분석 : 공감, 수용, 긍정적 해석, 명료화	부부
5	남편의 아내에 대한 시각 재조명/자신 및 아내의 강점 찾기 : 긍정심리적 관점, 공감, 수용, 해결중심치료기법(질문기법)	남편
6	아내의 남편에 대한 시각 재조명/자신 및 남편의 강점 찾기 : 긍정심리적 관점, 공감, 수용, 해결중심치료기법(질문기법)	아내
7	의사소통(말하기) 교육 및 훈련 : 역할극	부부
8	의사소통(듣기) 교육 및 훈련 : 역할극	부부
9	부부간 반복되는 문제 해결 대안 모색 : 가족체계이론 및 해결중심치료기법	부부
10	가족목표세우기 : 격려, 코칭	부부

삭제하거나 변경하였다. 치료는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각 회기당 90분씩 총10회기로 진행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표 1>과 같다.

이상의 치료내용을 각 회기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제의 명료화 및 치료 목표

부부갈등과 이혼문제에 대한 원인 제공에 대해 부부간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시댁가족만 챙길 뿐 자신의 가정에 대해 책임감이 부족하고 아내에 대한 근본적인 애정이 없을 뿐 아니라 무시하며, 감정을 영속시킬 의지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 남편은 자신은 충실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고, 가족문제의 원인은 아내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하였다. 치료자는 각자의 이야기에 공감, 수용하면서 예외질문을 통해 부부가 상호 이해할 기회를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가져보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치료 목표로 설정하였다.

2) 아내의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 및 욕구

아내가 기대했던 바람직한 부부의 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생활 모습이었다. 지나치다싶을 만큼 꼼꼼하게 어머니를 챙겼던 아버지에 비해 남편은 극히 무심하게 보였다. 특히 시댁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모욕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느낌에 대해 부부가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심히 배려하는 것 같은데 자신에게만 소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무시 받는다는 생각에 남편에 대한 애정과 결혼 동기에 대해서도 회의가 생긴다고 했다. 장래 가족의 경제적 계획에 대해서도 남편은 현상 유지에 만족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주거상태가 전세임에도 불구하고 저축한 돈(3000만원)까지 형제를 위해서 심지어 사업에 실패한 친구를 위해서 주려고 해서 최근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아내는 부업이나 자신을 계발시킬 수 있는 강좌 수강 등 외부 활동의 욕구가 있으나 남편이 강경하게 반대하며 “네가 별면 얼마나 버느냐.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야”라며 아내의 외부 활동을 막는 것에 대해 남편이 가정의 미래에 대해 경제적으로 무책임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더욱이 시부모가 시댁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아파트를 전세 연도록 강요했고, 매일 3 내지 4회 정도 연락도 없이 불췌 방문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노이로제가 생길 정도이며 예고 없이 저녁식사 시간에 들이닥치는 시댁식구들의 방문, 그 외에도 반찬가짓수, 빨래 개는 방법, 자녀양육, 기타 사소한 의사결정까지 사사건건 개입하는 시어머니로 인해 이혼에 대한 욕구가 더 커졌다. 또한 남편의 과거 음주벽이

시아버지의 행태와 비슷하며 이런 가족과 인연을 맺었다는 자체가 끔찍하게 여겨진다고 했다. 본 회기에서 치료자는 아내로 하여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혼과 관련한 갈등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정서적 반응들을 표출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관계망 점검을 통해 적절한 상황적 지지의 정도를 사정하였다. 본 회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남편의 행동 중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게 하였는데 예를 들면 남편의 음주벽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 대해 1년 전 절주로 음주벽을 고친 점을 상기시키고 남편의 음주벽 극복 의지라는 긍정적 관점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동일 현상에 대해 긍정적 재해석을 유도하였다.

3) 남편의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및 욕구

남편은 자신이 공무원이므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지나치게 경제적 압박을 느끼며 자신의 경제적 의사결정권을 무시한다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여자들이 결혼해서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남편과 시부모께 대한 순종인데 아내는 그렇지 않다며, 특히 시어머니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아들 셋을 공부시키느라 고생이 많았으므로 다른 며느리보다 더 잘 해야한다고 했다. 또 형이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장남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내가 협조하지 않는다며 시댁 식구들에게 무조건 고분고분해야 가정이 평화로운 것 아니냐며 한탄하였다. 이 회기에서 치료자는 남편의 원가족 관계 역동을 탐색하는 한편 부부 역할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점검하도록 하였고, 체계 간 경계의 모호성에 대해 남편이 인지하도록 개방질문을 사용하였다.

4) 부부 상호 욕구의 이해 및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 탐색

부부가 상호 역할에 대한 기대의 일치 및 불일치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부부간 의사소통유형을 파악하였다. 부부는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에는 공통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그 목표를 위한 구체적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아내는 자신들 가정의 개별성과 독립성에 대해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대해 일부 동의하면서도 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녀양육과 안정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일치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의사소통 유형은 일부 비난형 소통을 보이기는 했으나 두 사람 모두 회피적 태도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2회기와 3회기에 부부가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욕구 및 기대에 대해 치료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부부 상호간에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부부 갈등의 골이 깊도록 한 요인으로 보였다. 이 회기에서 아내는 시숙이 시부모께 맡기고 간 두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표현했고,

치료자의 중재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입장과 심정을 공감하려 노력했다.

5) 남편의 아내에 대한 재조명(긍정심리적 관점)

아내의 행동에 대해 강점을 찾아보도록 하고, 치료자는 남편이 현재의 시점부터 앞으로의 가정의 안정성에 아내의 강점들을 결부시켜 보도록 촉진시키기 위해 질문기법을 활용하였다. 척도질문과 기적질문을 통해 남편은 이혼이 자신이 원하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의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다.

6) 아내의 남편에 대한 재조명(긍정심리적 관점)

남편의 행동에 대해 강점을 찾아보도록 하고, 치료자는 아내에게도 질문기법을 통해 남편의 강점을 활용하면 이 가정 역시 이혼으로 끝나지 않고 충분히 기능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도록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아내는 남편이 시부모께 잘하기도 하지만 친정 부모께도 예의를 갖추어 도리를 다하려 애쓰는 점, 친정의 집안 대소사에 남편이 맡아들처럼 헌신적으로 일을 책임감 있게 한 점 등을 상기하였고 남편의 양가 부모님에 대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7) 의사소통 말하기 교육 및 훈련

부부의 회피적 의사소통유형을 개방적인 의사소통유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자신의 의사표현 방법에 있어서의 원칙을 설명한 후 부부가 연습하기 위해 역할극을 시도하였다. 실제 부부관계에서 있었던 일 중 남편이 시어머니와 아내의 의견이 충돌되면 “네 머리에 그렇지...”라거나 “새머리라서 할 수 없어” 등의 아내를 비하하는 언어 사용에 대해 길으로는 침묵과 무시로 대응하면서 가슴 속으로는 뼈에 사무치는 분노와 증오를 묻어두었던 아내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역할극을 하면서 눈물을 쏟아냈고, 남편 역시 자신이 이야기할 때마다 침묵으로 무시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꺼내 말을 끊곤 하던 아내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부 모두 쌓였던 일부 감정에 대해 정화 및 억지사지의 효과를 얻었다. 치료자는 교육, 촉진, 중재의 역할을 주로 하였으며 역할극을 하는 동안 이런 과정이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속적 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8) 의사소통 듣기 교육 및 훈련

듣기 훈련을 위해 경청의 원칙에 대해 설명한 후 역할극으로 연습하였다. 치료자는 청자가 화자의 말을 요약하기에서 ‘그게 아니라’ 식 보다는 ‘그렇구나’ 식의 사고와 표현을

하도록 촉진했고, 역할극이 끝난 후 소감을 부부가 공유하도록 했다. 부부는 경청이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도록 만든다고 했으며, 그동안 부부간에 경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9) 반복되는 문제의 해결 대안 모색

이 부부의 반복되는 문제의 발단은 주로 시댁식구 특히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발생되었다. 부부간의 사소한 의사결정에도 시어머니가 관여하며 남편은 무조건 어머니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부부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아내는 불시에 급습하듯 방문하는 시어머니로부터 24시간 감시받는다 는 생각으로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있다면, 또 남편이 아내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존중해 준다면 시댁식구가 저녁식사시간에 자주 찾아오는 것이나 시댁뿐 아니라 시숙댁의 짐장까지 하는 것에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남편은 아내가 시어머니께 불손하다고만 생각했고 결혼초기에 아내를 휘어잡아야한다는 생각으로 시댁가족과 있으면 의도적으로 더 아내를 비하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했다. 치료자는 가족의 하위체계간의 경계 확립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이 부부의 문제의 근원과 해결 방안으로서의 이혼의 장, 단점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부부는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남편의 원가족과 생식가족의 경계 확립을 위해 시댁에서 20분 거리의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하는 것을 잠정적인 대안으로 고려하였다.

10) 가족목표 세우기

10회기에서는 부부가 결혼관계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다시 노력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치료자가 제시한 가족생활주기별 인생설계표를 함께 작성해보는 작업을 하였다. 자녀는 더 낳지 않기로 부부가 합의하였고, 아내는 딸이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될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 후에는 자기계발, 취미생활, 재취업 등을 위해 시간을 갖는 것에 부부가 동의하였다. 주택구입시기를 향후 5년 시점으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접근 방법을 의논하였다. 치료자는 부부가 생활주기별로 목표를 정하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도록 촉진하였다.

2. 치료결과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은 10회의 세션을 살펴본 후에 전체적으로 상담에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부부하위체계의 강화, 차이 수용, 의사소통 수준, 문제해결접근으로 범주화하였다. 치료 효과는 각 범주별로 남편과 아내가 보이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

〈표 2〉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

범주	행동 특성
체계간 미분화	- 원가족간의 문화차이로 인해 가치관, 생활 제방면에서 태도가 상충 - 부모와의 미독립 - 아내는 독립적이며 남편을 마마보이라며 이해못함(남편비하) - 남편이 부모에 대한 지나칠 만큼의 순종적 태도로 효에 대한 부담을 가짐
부정적 시각	- 상호이해가 결핍된 부정적 시각으로 갈등 심화 - 상호성장배경의 차이로 이해 결여 - 아내는 시댁과의 적응문제가 큼
의사소통 기술부족	- 비난, 회피적 의사소통 방식 - 나전달과 듣기의 기술이 부족, 매사에 충돌, 분쟁으로 대화가 막힘 - 아내는 남편이 학력문제로 자신을 무시한다고 분노하지만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부 간 의사소통 부재
비건설적 문제해결 방식	- 갈등시 건설적 해결보다는 비난과 파괴적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해 왔음 - 자녀가 있음에도 생식가족 중심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시댁가족이 해결의 축에서 중심적으로 개입되어 있고 문제에 대해 현재 해결의 관점보다는 과거지향적 비난으로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경향

2) 부부의 차이점 수용

〈표 3〉 부부 간 차이점 수용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주요 변화	
		남편	아내
부부 간 차이점 수용	원가족 이해	-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결혼후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아내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었던 행동에서 자신의 원가족을 객관적으로 보게 됨 - 아내의 원가족과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아내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짐	- 남편 원가족의 모든 면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던 태도로 인해 남편을 자신과는 결코 융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며 비하했으나 상호 원가족의 문화적, 가치적 차이로 인해 풀이 깊어졌음을 인정하고 이해와 수용의 태도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게 됨
	긍정적 재해석	- 아내의 독립적 태도를 거부와 반항의 태도로 해석하였으나 자아분화 수준의 차이로 이해하면서 아내의 의견을 수용하게 됨 - 아내의 행동을 긍정적 관점에서 이해하려 함	- 남편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과 순종적 태도에 대해 '마마보이' 또는 '덜 떨어진 애어른' 등의 표현으로 비난하였으나 부모에 대한 배려로 재해석함 - 친정부모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딱딱하고 정이 없다고 비난했던 행동에서 남편의 행동을 정중한 태도로 재해석하고 사위로서 책임감이 강하다고 긍정적인면을 발견하려는 태도로 바뀜

3) 부부 하위체계의 강화

〈표 4〉 부부 하위체계의 강화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주요 변화	
		남편	아내
부부 하위체계	체계 간 경계	- 부모와의 독립과 자아 분화의 필요성 인정 - 아내의 시부모에 대한 태도에 무조건적 순종을 기대하며 불만을 가진 태도가 완화됨	- 남편을 마마보이라며 비난하며 시부모 특히 시모에 대한 반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결혼생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척도질문에서 0라고 대답, 이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태도에서 남편의 변화로 이혼의 대안 모색과 결혼생활 지속가능성 6이라고 변화
	사생활	- 아내의 의사결정 권 존중 태도 - 시댁가족이 하루에도 수차례 불시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미리 연락해 줄 것을 요청, 공간적 사생활 보장에 대해 수궁	- 남편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 남편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해석을 함 - 시댁가족에 대한 반감으로 시부모께 문안드리기 등 접촉을 거부하던 태도에서 전반적으로 먼저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시도

4) 의사소통방식의 변화

〈표 5〉 의사소통 방식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주요 변화	
		남편	아내
의사소통 방식	비효과적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 비난형의 공격적 의사소통 방식에서 일지형으로 변화 - 나 전달법과 듣기의 방법 습득 및 적용	- 거의 대부분 회피형으로 의사소통을 하다 감정이 폭발하면 비난형으로 남편을 대하였으나 감정조절과 건설적 나전달법을 사용하게 됨 - 학력 문제로 자신이 느끼는 모멸감에 대해 억압된 분노 표출로 대응했던 점, 시숙의 자녀를 돌봐야하는 부담감에 대해 건설적인 나전달법을 사용하여 남편의 수궁과 이해를 얻음
	공감 능력	-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감정에만 집중하던 행동에서 아내의 시댁적응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이해하게 됨 - 역사사지의 시도	- 남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남편 역시 부부갈등관계의 피해자라는 사실에 공감하여 남편을 이해하게 됨 - 역사사지의 시도

5) 문제해결방식

〈표 6〉 문제해결 방식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주요 변화	
		남편	아내
문제 해결 방식	문제의 명료화	- 부부갈등시 문제의 본질보다는 아내에 대한 비난을 하였으나 갈등을 유발한 상호의 욕구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갖게 됨	- 문제의 근원을 무조건 남편측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결부시키면서 감정을 폭발시키던 태도가 해결중심적 태도의 필요성을 인식함 - 초기 기적질문에서 기적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으나 회기가 지날수록 기적질문을 통해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됨
	긍정적 해결 지향	- 아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혼도 불사하겠다며 아내를 구제불능으로 표현했으나 해결가능한 대안을 탐색하는 부분에서 경직성이 완화되었고, 아내에 대한 긍정적 재해석 과정을 통해 부부관계의 회복을 기대함	- 회기가 진행될수록 남편의 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에 감사하고 보조하려는 태도를 보임 - 이혼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 초기의 입장에서 상호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지속된다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해 보고 인내하겠다고 함

V. 논의 및 결론

본 사례의 경우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은 부부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이기 보다는 두 사람의 원가족에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간의 인생태도 즉 가치관의 상충, 의사소통 양식의 차이, 문제해결방법의 차이가 원가족으로부터 학습된 결과라는 관점 없이 상대를 비난 또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오던 부부가 치료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관계의 전환점이 된 계기였다.

남편의 원가족의 경우 시아버지는 경제적 무능력으로 시어머니에게 경제적 주도권을 빼앗김으로 인해 부부권력의 상대적 박탈감을 음주 후 폭언과 폭력으로 표출했고 반면 시어머니는 아들들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부모자녀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결혼관계에서의 보상을 받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족환경에서 남편은 매사에 시어머니의 관여와 의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 왔고 이러한 문제해결양식은 결혼 후 부부관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양육하며 큰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므로 며느리에게 이에 대해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들이 성인으로 자라 일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결혼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어머니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여겼고(Kim & Ryu, 2005), 이는 자녀의 가정에 불화를 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 역동은 선행연구에서 아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동기가 며느리와 갈등을 빚게 된다는 연구결과(고정자, 김갑숙, 1993; 이해자, 2003)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우애평등적인 가족환경에서 성장한 아내의 경우 남편에 비해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이었고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시어머니에게 종속적인 남편의 존재감과 역할에 대해 불신으로 작용하였다. 부부는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아내의 개방적인 의사표현이 상명하복의 일방적 의사소통과 비난, 회피적 소통양식을 가진 남편과 남편의 원가족에게는 도전적 또는 대응적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차이가 부부관계 및 고부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아내는 자신의 원가족 관계에서 용인되어 온 개방적 의사표현이 시댁에서 충돌의 원인이 되는 반복적인 상황을 통해 의사표현 자체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와 같은 혼란으로 인해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시 의도적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의사소통양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치료자가 부부와 함께 원가족과의 관계, 의사소통방식을 탐색하는 과정은 부부에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부의 문제가 부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원가족체계와의 관계 역동에서 나타난 결과물로 이해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부부들은 문제와 개인을 분리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치료자는 이들 부부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론적 모델로서 긍정심리적 접근, 체계이론, 의사소통이론, 해결중심치료적 접근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교육적 접근방식이다. 치료자는 치료적 관점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하거나 실제 활동을 통해 태도 변화,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도록 하여 부부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행동을 변화하도록 도왔다. 또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대처방식을 제시하거나 지금까지 시도했던 문제해결방식을 변화시키도록 제안하여 지금까지 감정적인 문제로 얽혀 있던 자신들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내담자는 치료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기대하고 있었고, 의사소통 기술 훈련과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부부의 변화에 효과적이었다고 사료된다. 둘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부부가 각각의 가치관과 입장에서 주장할 때 일차적으로 공감, 수용을 한 후 상대의 입장에서 현상을 지각할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재해석을 유도하였다. 또한 욕구 차이에 대한 절충이나 대안 모색에서 부부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면서 상호 만족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중재하였다. 치료과정을 통해 부부는 원가족체계로부터 분화된 새로운 부부체계의 틀을

형성하게 되었고, 부부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체계 및 인식의 변화는 부부의 문제해결방식을 이혼이 아니라 적응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촉진자로서 동기부여와 지지 및 격려하는 역할을 하였다. 부부 각자의 욕구와 기대,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한 후,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를 지향하도록 촉진하고, 내담자가 시도한 아주 작은 변화에도 그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치료 전 아내는 현실 상황에서 자신이 무력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관계를 해체하는 것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치료과정에서 자신이 환경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또 배우자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치료과정을 통해 얻어진 주요 효과는 첫째, 부부가 이해 및 상호 배려하게 된 태도의 변화이다. 서로의 차이가 원가족과의 관계 역동에서 영향을 받은 것임을 인식하면서 비난과 대응의 시각에서 이해와 수용의 시각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긍정적인 관점에서 개인 및 부부관계에서의 강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상대의 탓으로 돌리던 문제 상황에 대해 자신이 변화의 주도자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변화의 주체적 역할을 하게 된 태도를 가졌다. 이러한 태도는 향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이다. 그동안 폐쇄적이고 회피적 의사소통을 해 왔으나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부부가 개방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게 되었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상호 오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사례의 치료과정을 통해 이혼 직전의 단계에 있던 부부가 이혼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가족 목표로 세웠다는 점에서 본 치료적 접근이 이혼 예방을 위한 하나의 치료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었다. 그러나 남편의 원가족을 치료 장면에 포함시키지 못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문제상황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이혼위기의 가족치료 접근을 위해서는 부부의 원가족을 치료에 동참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가족의 문화적 차이 외에도 다른 갈등 요인별 특성에 맞도록 개별화된 개입프로그램의 개발이 기대된다.

■ 참고문헌

고정자, 김갑숙(1993). 고부관계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235-247.
 김동일(2010). **이혼상담사 조정위원을 위한 심화교육**. 서울:

한국상담연합회.
 김성천, 이소영, 장혜림(2002). **해결중심 집단치료**. 서울: 청목출판사.
 김재원(2001). 말의 상처에 대하여. **사회언어학**, 9(1), 41-65.
 김정옥, 박경규, 구향숙, 한동희, 류도희, 전형미(1999). **결혼과 가족**. 서울: 학지사.
 김진숙(2010). 이혼가족의 긍정심리적 상담. **이혼상담사 조정위원을 위한 심화교육**, 55-64.
 김혜정(2008). 가족간 갈등대화의 구조와 책략 연구 - 고부·부부간 갈등대화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박경(2002). 우울한 중년여성의 부부관계 및 의사소통. **여성건강**, 3(2), 19-32.
 박경란, 이영숙(2003). 고부관계에서 며느리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및 대처. **한국노인복지학회**, 22, 79-104.
 박태영(2000a). 이혼한 부부의 재결합을 위한 부부치료. **한국가족치료학회 학술모임 및 사례발표**, 17-38.
 박태영(2000b). 이혼하려는 부부에 대한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와 이야기치료의 적용. **가족치료이론의 적용과 실천**. 서울: 학지사.
 박태영, 김태한, 김혜선(2009). 이혼위기에 있는 결혼 초기 부부에 대한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93-114.
 신수진, 최준식(2002). **현대 한국사회의 이증가치체계**. 서울: 집문당.
 신영화(2005). 이혼전 상담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상황과 복지**, 21, 121-154.
 엄예선(1988). 한국가족과 가족치료-한국 도시중산층을 위한 정신치료모형의 구상. **한국사회복지학회**, 12, 93-115.
 윤명숙(2000). 이혼과정치료. **한국가족치료학회 학술발표논문**, 39-49.
 이두원(2009). 부부간 의사소통 행태의 세대별 특성과 변천과정 연구.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17(1), 129-151.
 이해자(2003). 시모의 고부갈등 유형화와 관련변인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19, 31-59.
 장미희, 전원희(2008). 성인여성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7(2), 236-244.
 전영주(2004). 이혼 전 상담의 임상적 쟁점에 대한 고찰. **상담학 연구**, 6(1), 245-259.
 최인숙(1995). 이혼문제를 지닌 부부상담에서 자문을 활용한 상담사례. **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 편.가족치료총론**, 서울: 동인.

- 통계청(2011). 통계연감. <http://www.kostat.go.kr/>에서 2011년 10월 2일 인출.
- 하상희(2008).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29-141.
- Brock, G. W., & Barnard, C. P.(2002). *Procedures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Allyn and Bacon.
- Canary, D. J., Cupach, W. R., & Serpe, R.(2001). A competence-based approach examine interpersonal conflict: Test of a longitudinal model. *Communication Research*, 28, 79-104.
- Goldenberg, I., & Goldenberg, H.(2007). *Family therapy : An overview*.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Johnson, S. L., & Jacob, T.(2000). Sequential interactions in the marital communication of depressed men and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1), 4-12.
- Kaslow, F. W., & Schwarz, L.(1987). *Dyanmic of divorce : A life cycle perspective*, N. Y. : Brunner/Mazel, Inc.
- Kim, B. L., & Ryu, E.(2005). Korean family. pp. 349-362. in M. McGoldrick, J. Giordano and N. Garcia-Preto(Eds.). *Ethnicity and family therapy*, NY: The Grilford Press.
- Miles, M. B., & Huberman, A. M.(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Thousand Oaks, CA: SAGE.
- Sprenkle, D. H.(1985). Introduction : divorce therapy, in K. H. Sprenkle(Eds.). *Divorce therapy*, NY: The Haworth Press.
- Sprenkle, D. H., & Storm, C. L.(1983). Divorce therapy and outcome research: A substantive and methodological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722-731.

접 수 일 : 2011년 10월 25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0월 26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1월 16일